

02-1 생명의 말씀

나의 믿음은

‘입술을 선하게 지키는가, 영혼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가’ 이 세 가지 분야를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본다.

02-2 교회소식

권능의 무안단물 11주년 기념예배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이 된 무안단물의 11주년 기념예배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점검해 본다.

03 기획특집

신약 성경이 한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옛 언약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새로운 언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흐름을 시대 순으로 정리해 살펴본다.

04 간증

“믿음으로 멋진 꿈이 자라고 있어요”

당회장님의 신앙서적들은 반듯한 신앙과 비전, 세상을 보는 넓은 안목을 갖게 해 주었다. 주님 사랑에 감사하는 성다경 자매와 정대훈 형제의 간증.

만민뉴스

제472호 2011년 3월 1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해요”



3월 7일 월요일 저녁 9시, 우리 교회 본당과 2성전에서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절야' 기도회가(주제: '가나안성전, 새 예루살렘 가기 운동') 시작됐다.

첫날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다. 이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속히 성결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의 사모함이 그 어느 때보다 승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만민기도원 집계

에 따르면 이날 본당과 2성전에 모인 수만 해도 예년보다 약 5백 명이 늘어 4,383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그 외에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지성전과 국내외 지교회에서 함께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전날인 3월 6일 주일 저녁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버리지 못한 악을 떠올려 주시고, 죄의 근본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성도들은 이 원장의 인도에 따라

교회와 목자, 자신의 성결과 가나안 성전, 사명 감당,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 하늘 보좌를 올리는 진한 기도의 향을 올리고 있다.

주님 말씀에 따라 하루 일을 마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일을 설계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종려주일인 4월 17일까지 42일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 다니엘절야는 성결을 이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각오도 대단하다.

최석 집사(40세)는 “생각, 말, 행동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다. 특히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단물만 내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불같은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며 “어느 때보다 중심 기도를 올리게 되어 행복하다”고 한다. 김복순 집사(31세)는 “기도할 때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왔다”며 “다니엘절야를 하면 하나님께 하루 일기를 쓰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때 위로부터 기쁨을 주신다”고 고백한다.

